



4면

"전북대, 혁신 통해 지역발전 선도"

# 전주매일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음 4월 21일) 제35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내 노후산단, 미래신산업 거점으로

###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경쟁력강화사업 대거 선정 전북자치도, 올 상반기에만 8개 사업 3146억원 따내

전북자치도내 노후산업단지가 기반 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미래신산업 거점산단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도내 노후산단에 후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4개소 186억원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산업단지 입지 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노후 산업단지에서 편의·문화시설 공급, 노후공장 리뉴얼 등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기사업, 4월에는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한 공모사업에 상반기에만 무려 8개 사업, 3,146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노후산업단지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과 △노후거점 경쟁력강화 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전통 제조사업 중심의 산단구조를 철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찾는 미래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1개사업, 85.7억)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 및 편의시설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 유입 기능 강화와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남원 노암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단지에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차량위주의 산단내 도로환경을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근로자 쉼터·녹지공간 조성으로 근로자



모내기 현장행정 나선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김제시 봉남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하고 있다.

중심의 도로 환경으로 변화시켜 이동 편의의 제고 및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연장농공단지는 후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1개사업, 100억)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육성, 청년층에게 창업공간 확보, 신산업 유치 등으로 후폐업공장으로 인한 쇠락한 산단(Rust Belt) 이미지를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익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노후공장에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1개 사업, 3억)을 통해 산단 내 노후화된 공장의 외부 및 조경환경이 개선돼 최적하고 어두운 과거 공간 이미지를 벗어나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도는 노후화된 전주 제1·2일반 산업단지 등에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1개 사업, 2,843억)을 추진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주력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전환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의 유치·다각화를 통해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

생시킬 계획도 추진된다.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발맞춰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산단 구축도 예정돼 있다.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접한 산업단지 기업들간의 공동의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밸류체인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수소·드론 등 미래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팔복동 산업단지는 복합용지 공급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기업근로자에게 근로 및 고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노후화된 도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며 "도내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모여 드는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올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합니다'

### 김관영 도지사, 김제 봉남면 농가서 모내기 현장행정 농민 현장 목소리 청취... "고품질 쌀 생산 지속 노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쌀전업농회들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실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김제시 봉남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실시하고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호석 한국쌀전업농전북자치도연합회장, 14개 시·군 쌀전업농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쌀 산업을 연간 1조5,00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표 효과 품목으로, 도에서는 육묘장, 농약살포 드론, 우수

브랜드쌀생산단지 운영, 전북 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과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모내기 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년보다 4,464ha 감소한 10만2,919ha에 벼를 재배할 계획이며, 5월 20일 현재 약 18% 1만9,349ha의 모내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 핵심 덕목·가치 체계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내실화 계획 책임·존중(배려)·세계시민성 등이 핵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인성교육 내실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학교폭력·아동청소년 우울증 증가 등 개인의 위기, 타인과 협력 및 갈등해결 능력이 하락하는 사회의 위기, 기후위기 및 지구촌 갈등 등 상황 등 세계의 위기 시대를 맞아 마련됐다.

이는 '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을 책임, 존중(배려), 세계시민성을 핵심 덕목으로 삼아 7개 하위요소를 통해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에서는 자기정체성, 성실, 지

속성 등 자기관리 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존중에서는 공감, 효·예, 갈등 관리 등의 가치를 배운다.

또 평화공존과 생태감수성 교육으로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몸으로 익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명상수업 △학년별 인성 중심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성은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하는 핵심 가치이자 덕목"이라면서 "참여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휴식림무주, 전주 MDC,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협찬, Sola, Torriden, BIDA, MABITA, HIBROW, 진우건설(주)